「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2022. 5): 121-148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6 No.1 (May 2022)
http://dx.doi.org/10.20484/klog.26.1.6

일-생활 갈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에 미치는 영향: 부산지역 가족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최 경 희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일-생활 갈등,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 그리고 가족관계 만족도 및 가사분담(아내전담정도) 변수 간 구조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코로나19 시기의 가족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2020년 부산지역 가족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성별 및 고용유형에 따른 구조모형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일-생활 갈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생활 갈등은 가족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사분담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고용유형별 구조모형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코로나19, 일-생활 갈등, 가사분담, 가족갈등, 가족관계 만족도

Ⅰ. 서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일-생활 갈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이하 '코로나19 가족갈등'으로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일-생활 갈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가족관계 만족도가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가사분담이 코로나19 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 및 이 관계에서 가족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생활 갈등이 다양한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므로(Schieman et al. 2021), 일, 가정 생활 및 개인 생활을 성공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복지에 중요하다(OECD Better Life Index).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고용주의 관심이 직원의 동기 부여, 채용 및 유지와 조직몰입 및 직업 만족도와 같은 직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의 성과에 기여

* 본 논문은 2021년 12월 한국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한다(Kelliher et al., 2019). 긍정적인 일과 삶의 균형은 직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진의 위험을 줄이며 더 큰 웰빙을 만든다(Lonska et al., 2021).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감소시키고 갈등을 겪고 있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제도가 가족친화정책이다(최진욱·노종호, 2020).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가족친화정책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2008년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가족친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최진욱·노종호, 2020).

그런데,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생활 양립지수는 높지 않다. OECD Better Life Index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장시간 근로자 비율과[1] 여가와 개인 생활에 주어지는 시간을[2]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유급근로에서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19.7%로 OECD 평균인 10%보다 훨씬 높다. 한국의 정규직 근로자(full-time workers)는 평균적으로 하루의 62%(14.8시간)를 개인 생활(식사, 수면 등)과 여가(친구 및 가족과의 사교, 취미, 게임, 컴퓨터 및 TV 사용 등)에 할애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5시간에 가깝다. 장시간 근로자 비율과 관련해서 한국의 순위는 전체 41개 국가 중에서 37위이다.[3] 여가와 개인 생활에 주어지는 시간과 관련해서는 전체 41개 국가 중에서 25위를[4] 차지하고 있다(OECD Better Life Index, 2022년 4월 17일 검색).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직장, 가족 및 사회생활에 큰 충격을 주었다(schieman et al. 2021). 코로나19 비상상황은 재택근무 인구를 증대시켰고, 이들의 일과 삶의 균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Lonska et al., 2021).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집이 코로나 위기 대응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되었고, 가족은 의식주 해결, 위생과 건강, 돌봄, 교육, 일터의 기능을 동시적으로 수행해야 했다(김현미, 2020).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족이 위기 대처의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진미정, 2020).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 가족 간의 거리가 급속하게 가까워지게 됨에 따라 가족갈등이 촉발되었다(박경은,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코로나19 가족생활 실태조사(2020)' 결과에 따르면, 가족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37.4%로 여성(40.6%)이 남성(32.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외부환경의 변화로 부부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지만,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사부담이 불공평하게 주로 아내에게 분담됨으로써 가족갈등이 발생하게 된다(주국희, 2020). 코로나19 상황에서 늘어난 가사노동부담과 관련해서, 추가 가사노동업무의 더 많은 부분을 여성이 짊어지게 됨으로써 가사노동의 상대적 격차는 여전하다(Craig & Churchill, 2021). 아무리 여성 친화적인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가정 내에서 남녀 간 노동분업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국가정책이 일-생활 갈등을 줄이기는 어렵다(Crompton & Lyonette, 2006).

한국의 가족정책은 여성의 노동권 확립이나 모성보호에 집중해왔고, 가정 내 가사분담을 둘러

1) 주당 50시간 또는 그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OECD Better Life Index)

2) 여가와 개인 생활(수면과 식사 포함)에 사용하는 평균 시간(OECD Better Life Index)

3) 멕시코의 경우, 장시간 근로자 비율이 27%로 가장 높아서 41개 국가 중에서 41위이다.

4) 이탈리아의 경우, 여가와 개인 생활에 주어지는 시간이 16.5시간으로 가장 많아서 41개 국가 중에서 1위이다.

싼 남성의 활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미흡했다(김연진, 2015). 대조적으로, 북유럽 국가(Nordic states)에서는 맞벌이 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과 함께 남성이 가사노동, 특히 육아와 관련하여 더 많은 부분을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노력이 수반되었다(Crompton & Lyonette, 2006). 정희정(2019)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유연근로제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돌봄에 관한 성역할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북유럽에서와 같이, 아버지에게 지급되고 어머니에게 이전될 수 없는 할당 부성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강이수(2011)는 가부장적 전통과 남성 생계부양자 전통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일-가정 양립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남성의 역할 변화라고 주장한다.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에서 가족의 중요성이 커짐과 동시에 가족갈등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갈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시사점을 얻는데 초점을 두는 탐색적 연구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의 원인으로 일-생활 갈등과 가정 내 가사분담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일-생활 갈등, 가사분담(아내전담정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 및 가족관계 만족도 변수 간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Gutek, Searle, & Klepa(1991)의 논의를 바탕으로, 일-생활 갈등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 일-생활 갈등(일-생활 갈등Ⅰ)은 직장일로 인해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WIF에 해당), 두 번째 일-생활 갈등(일-생활 갈등Ⅱ)은 가정생활로 인해 직장일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FIW에 해당). 한편, 본 연구는 성별과 고용유형별로 구조모형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재난의 영향력은 젠더, 계급, 인종적으로 불평등하게 나타난다(김현미, 2020)고 한다면, 코로나19라는 재난 하에서 일-생활 갈등과 코로나19 가족갈등 등의 관계도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2020년 부산지역 가족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며, 일-생활 갈등과 코로나19 가족갈등 등을 포함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AMOS25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추정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일-생활 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의 심화

1) 일-생활 갈등

'일과 생활의 균형'(work life balance: 워라밸)이라는 용어는 개인 삶에서 일 측면과 일이 아닌 측면 간의 관계를 말하며, 만족스러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달성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것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측면(대개는 일)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Kelliher et al., 2019).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주로 여성 특히 어머니의 고용이 증가한 결

과이다(Crompton & Lyonette, 2006). 일과 생활의 균형은 일 연구자들로 하여금 유급 직장 이상을 바라보도록 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개념의 출현은 가정 안팎에서 수행되는 모든 형태의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 사이의 본질적인 상호 연결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Warren, 2021).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는 것은 노동 시장에서의 고용 증대,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 보장, 인구 통계학적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하는 더 높은 수준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Lonska et al., 2021).

일과 생활의 균형은 일과 생활의 갈등 수준으로 표시될 수 있다(Crompton & Lyonette, 2006). 일과 생활의 갈등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직업 때문에 가족이나 사생활에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직업으로 인해 삶의 중요한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나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직장 역할이 가정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느낀다(Schieman et al. 2021).

Gutek, Searle, & Klepa(1991)는 일-가정 갈등의 두 가지 요소와 일-가정 갈등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구분한다. 일-가정 갈등의 두 가지 요소로 직장일이 가정생활을 방해하는 것(work interference with family; WIF)과 가정생활이 직장일을 방해하는 것(family interference with work; FIW)을 구분한다. 일-가정 갈등에 대한 두 가지 대립적인 관점(framework)으로 합리적 관점과 젠더 역할 관점을 제시한다. 일 영역과 가정 영역에서의 시간 소비량이 정확하게 WIF와 FIW와 관련된다고 보는 합리적 관점에 반해, 시간과 갈등의 관계는 젠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젠더 역할 관점이다.

한편, 일과 생활은 일반적으로 갈등관계로 인식되고 있는데 반해, Greenhaus & Powell(2006)은 일-가정 강화(work-family enrichment)를 제시하고 있다. 일-가정 강화를, 한 역할에서의 경험이 다른 역할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도로 정의하고, 일-가정 강화의 이론적 모델을 제안하고 강화에 대한 두 가지 경로, 즉 도구적 경로와 정서적 경로를 반영하는 일련의 연구 명제를 제안하고 있다.

2) 일-생활 갈등과 가족갈등

일-생활 갈등 또는 워라밸의 결과를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졌다(〈표 1〉 참조). 선행연구들은 일-생활 갈등 및 일-생활 균형은 삶의 만족, 삶의 질, 조직헌신, 행복, 가족관계, 여가만족, 직무만족, 관광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1〉 일-생활 갈등 또는 워라밸의 결과에 대한 연구

논문	연구내용
Ryu(2015)	업무 역할 스트레스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등
엄혜경·성상현(2017)	일-가정 갈등이 직무만족 등에 미치는 영향
민경선(2018)	여가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재완·강혜진(2018)	일과 삶의 균형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길광현·정석훈·오성규·김건석(2019)	워라밸 교육프로그램이 여가만족 등에 미치는 영향
윤수인·이홍직(2020)	일-생활 균형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현솔지·백학영(2020)	일-가정 갈등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우은주·전예진·김영국(2021)	워라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미연·서영욱(2021)	워라밸이 조직헌신에 미치는 영향
양석원·정찬구(2021)	워라밸 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제니·문지현·진혜수·정지연(2021)	워라밸 인식이 관광태도 등에 미치는 영향

가족갈등의 원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가족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는 개인 수준 원인, 가족 수준 원인, 사회 수준 원인 등이 있다(김유경 외, 2014). 오미옥·이진향(2019)은 가족관계 만족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과 복지서비스 이용이 가족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이선(2019)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경우, 외국 출신 아내의 취업과 함께 직장일과 가사·돌봄 노동의 이중부담이 커지는데도 가사 및 돌봄 분담은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갈등이 커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일-생활 갈등의 결과와 가족갈등의 원인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데, 일-생활 갈등이 가족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생활 갈등이 삶의 만족이나 삶의 질, 가족관계, 행복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일-가정 갈등이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현솔지·백학영, 2020), 일-생활 갈등이 가족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3) 코로나19와 가족생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일-생활 갈등, 가족생활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020년 8월에 라트비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취업인구의 모든 집단이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일과 삶의 균형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8~44세 여성과 가구원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일 생활 균형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Lonska et al., 2021). Schieman et al.(2021)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과 6월까지 캐나다 근로자를 추적한 전국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집에 자녀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생활 갈등이 감소했음을 발견했다. 또한 집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막내의 연령에 따라 패턴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진미정·성미애·손서희·유재언·이재림·장영은(2020)은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시간 변화, 가정경제 악화, 배우자와의 관계 악화가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지현·최영준(2021)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족의 피해와 돌봄공백 대처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고, 가족생활의 모습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최아라(2020)는 코로나19 시대의 아동돌봄 분야의 쟁점 및 과제로서 돌봄의 재가족화와 돌봄공백 문제, 긴급돌봄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불안감, 온라인 강의로 인한 디지털 활용격차 문제, 가정의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서비스 부족, 코로나로 인한 가족갈등 증가 및 아동학대 문제, 스마트폰 과의존 등 코로나가 불러온 다양한 아동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란(2020)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이 함께 집에 있는 시간과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늘면서, 가족 간 갈등이 증대하고 있다고 보고, 긍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진미정(2020)은 코로나19 위기 시에 가족이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돌봄을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일에는 소극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일-생활 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 일-생활 갈등 I 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를 증대시킬 것이다.
가설2 일-생활 갈등 II 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를 증대시킬 것이다.

2. 가족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가족관계는 가족행동의 총체이며, 가족 상호작용의 역동적 과정이다(양옥경, 2001). 가족관계는 생활만족도나 우울과 같은 개인적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박종서·이지혜, 2014).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유정헌·성혜영, 2009; 문필동·이정화, 2016).

1) 가족관계 만족도와 코로나19 가족갈등

가족관계 만족도의 결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박지현(2017)은 경제활동 여부와 가족관계 만족도가 경제적 노후준비, 정서 및 사회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통합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경제적 노후준비, 통합적 노후준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은 경제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통합적 노후준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여부와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진미정 외(2020)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진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녀돌봄 부담 증가나 자녀와의 관계는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와 코로나19 가족갈등 간 관계에 대해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3 가족관계 만족도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를 감소시킬 것이다.

2) 일-생활 갈등과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의 선행변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자영·한창근(2017)은 장애인 가구원의 취업여부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자산수준과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김새봄·최송식(2018)은 중년 기혼여성의 성역할 인식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중년 기혼여성의 성역할 인식이 전통적일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박종서·이지혜(2014)는 가사분담에서 남편의 참여가 늘수록 가족관계가 좋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유진(2015)은 부부단독가구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가사분담만족, 평등감, 의사소통만족도가 부부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지현·최영준(2021)은 코로나19 시기에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에 가족시간, 가사노동, 일가정양립제도 사용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가족관계 만족도를 매개변수나 조절변수로 연구모형에 포함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표 2〉 가족관계 만족도를 매개변수나 조절변수로 연구모형에 포함하는 연구

논문	연구내용
유정헌·성혜영(2009)	노인의 경제 상태, 신체적 건강, 인지적 건강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가족관계만족도가 중재효과가 있는지를 분석
김세진·문수경(201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참여기간, 가족관계만족도, 참여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
문필동·이정화(2016)	장애노인의 경제활동이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관계만족도가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
임연옥·윤현숙·황지성(2016)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 관계에서, 가족관계만족도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
송운용·도유희(2019)	가족관계 만족도가 노인의 자산 수준과 건강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
장은경·최희정(2019)	남성의 경우, 이혼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분석
이성은(2021)	노인운전자의 안전운전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와 가족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4 일-생활 갈등 I 은 가족관계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일-생활 갈등 II 는 가족관계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가족관계 만족도는 일-생활 갈등 I 과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7 가족관계 만족도는 일-생활 갈등 II 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 가사분담과 가족관계 만족도

여성이 직장일을 하지만, 직장, 문화, 그리고 남편이 이런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Hochschild(1989)는 이를 '지연된 혁명(stalled revolu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Hochschild(1989)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질적 조사를 바탕으로, 부부가 가사를 분담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교해서 더 행복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남편의 가사분담은 아내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아내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부부간 역할갈등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아내와 남편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다(유계숙, 2010). 가사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아내들은 과로, 질병, 감정적 고갈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 남편 또한 아내의 적개심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Hochschild, 1989).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가정에서 남편들이 이인생계부양자 모델은 수용하면서 이인양육자 모델은 수용하지 않고 있어서,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유계숙, 2010). 직업의 성분리 구조의 문제가 한국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심각하며, 가사분담에 있어서도 심각한 성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부인은 가정내에서 시간소요가 많은 허드렛일을 담당하고 남편은 쉬운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정내 성분리 현상은 가족 및 여성복지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권승, 2003).

가사분담의 결과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표 3〉 참조).

〈표 3〉 가사분담의 결과에 대한 연구

논문	연구내용
Glass & Fujimoto(1994)	유급 또는 무급 노동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과 우울증
이명신(1998)	남편의 가사분담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이정숙(2002)	가사분담관리행동과 심리적 복지감
권승(2003)	고용형태가 가정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Crompton & Lyonette(2006)	가사노동의 분업과 일-생활 갈등
이여봉(2010)	가사부담과 결혼행복도
유계숙(2010)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부인의 만족도와 결혼생활 만족도
유계숙·강수향·오아림·이주현(2011)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
강이수(2011)	90년대 이전과 이후 맞벌이 가구의 남편의 존재형태, 역할 책임의 유형, 가사 참여 정도 변화
임인숙·한신원·박지연(2012)	유급노동과 가사노동의 형태와 질이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
조혜숙(2013)	가사분담 인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신명숙·옥경희(2014)	경제적 어려움과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가사분담과 부부공유활동의 매개효과
호윤정·오영아·이명선(2015)	기혼여성의 가사노동분담만족도와 우울수준
김인경(2020)	남편의 가사노동과 부인의 경제활동참여
이진우·금현섭(2020)	아내의 가사부담증가와 삶의 만족도
오영은·이정화(2020)	부부의 가사분담지각과 남편의 행복감

Shafer et al.(2020)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버지들의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면서, 봉쇄 초기 몇 달 간에는 보다 평등한 분업으로의 작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제시하고 있다. Carlson et al.(2021)은 2020년 3월부터 대유행 초기(2020년 4월 말)까지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사 및 육아 참여 및 분업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 대부분의 가사 노동을 하고 있던 어머니의 가사 책임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아버지의 기여가 증가함에 따라 가사 노동의 보다 평등한 분업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가사분담과 가족관계 만족도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지현·최영준(2021)은 코로나19 시기에 남성 가사분담이 가족시간과 가족관계 만족도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관계 만족도가 커지며, 남성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경우에 그 기울기가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8 가사분담(아내전담정도)은 가족관계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9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사분담(아내전담정도)과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 집단별 차이

선행연구들은 코로나19의 피해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집중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돌봄, 관계단절 등의 피해에 있어서 그 정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지현·최영준, 2021). 진미정 외(2020)에 따르면, 식사준비, 세탁, 청소, 장보기, 인터넷 쇼핑과 같은 항목의 가사노동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을 남녀 간에 비교하면 남성의 비율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자녀돌봄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고용률 하락, 실업률 상승, 취업자 수 감소,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일시휴직자 증가 등 전년 동월 대비 고용동향 모든 지표에서 여성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난주, 2020). 가정폭력과 성적 착취의 증가, 보건사회 분야 노동자의 70%에 달하는 여성들의 감염 위험에의 노출, 취약한 일자리에 집중된 저소득층 여성의 해고와 강제 휴직으로 인한 빈곤화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김현미, 2020). 코로나 위기는 여성의 성 역할을 퇴행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학교의 교육 및 돌봄 기능이 붕괴되면서 유자녀 여성은 가사와 돌봄노동 외에, '재택학습'의 책임도 맡게 되었다(김현미, 2020). Qian & Fuller(2020)는 노동력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2월과 5월 사이에 어린 자녀의 부모들 사이의 성별 고용 격차가 커졌음을 보여준다. Landivar et al.(2020)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가 기존의 성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Craig & Churchill(2021)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5월 국가가 강제한 봉쇄 기간 동안에 전염병이 유급 노동, 가사 노동 및 돌봄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의 초기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봉쇄가 주관적 시간 압박을 낮추는 반면,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의 균형에 대한 불만은 여성의 경우 훨씬 더 현저하게 높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가해지는 것은 아니며, 여성, 장애인,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집중된다(김명환, 2021). 최은영(2016)은 고용상 지위(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에 따른 일-생활 시간갈등 정도를 분석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일-생활 시간 갈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할 때,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된 변수간 관계가 성별에 따라, 고용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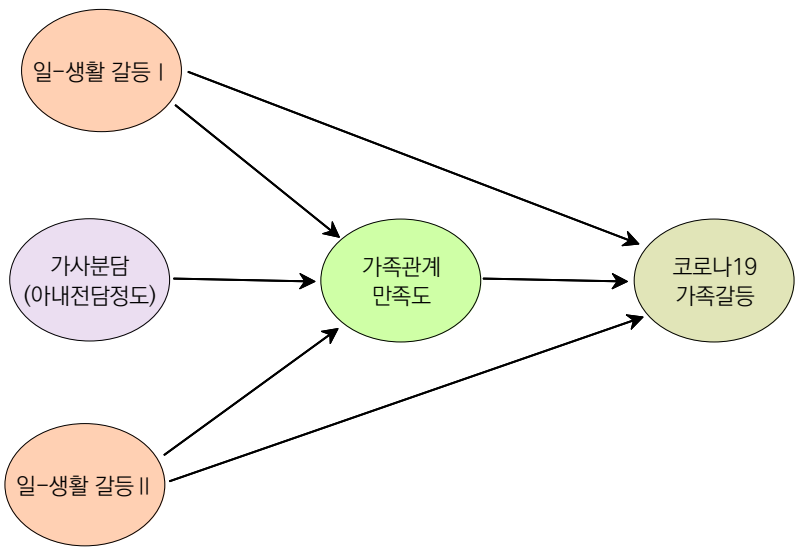
가설10 성별에 따라 변수 간 구조모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1 고용유형에 따라 변수 간 구조모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모형과 데이터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일-생활 갈등Ⅰ, 일-생활 갈등Ⅱ, 가사분담(아내전담정도), 가족관계 만족도, 코로나19 가족갈등 간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그림 1〉 연구모형



2. 변수

종속변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녀(형제, 자매)간 갈등이 심화되었다'와 '코로나19로 인해 부모-자녀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등 2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와 관련해서 3개의 문항이 있었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측치 현황 그리고 변수간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의 두 개의 문항을 선택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문항은 연구에 활용하지 않았다.

독립변수는 일-생활 갈등Ⅰ, 일-생활 갈등Ⅱ, 가사분담(아내전담정도) 등이다. Gutek et al.(1991)은 WIF와 FIW 척도가 요인분석에 의하는 경우에 별도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도 Gutek et al.(1991)을 따라, 직장일이 가정생활을 방해하는 WIF와 가정생활이 직장일을 방해하는 FIW를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의 일-생활 갈등Ⅰ은 Gutek et al.(1991)의 WIF, 일-생활 갈등Ⅱ는 FIW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생활 갈등Ⅰ은 '직장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직장일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등 2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일-생활 갈등Ⅱ는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생활이나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에서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다' 등 2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일-생활 갈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10개가 있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10개 문항이 5개씩 별도의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과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생활 갈등Ⅰ 측정변수와 일-생활 갈등Ⅱ 측정변수로 위의 변수를 선택하였다. 가사분담(아내전담정도)은 '의류 손질 및 세탁에 대해 부부간 분담 정도'와 '청소 및 정리에 대해 부부간 분담 정도' 등 2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1점은 '거의 남편이'이며, 5점은 '거의 아내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가 전담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사분담(아내전담정도)과 관련하여 설문조사에서는 6개의 문항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절차가 있고, 부트스트래핑을 위해서는 결측치가 없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가사분담 관련 변수 중 일부 변수의 경우에 결측치가 많아서 분석에 활용하기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 결측치,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가사분담 측정변수를 선택하였다.

매개변수는 가족관계 만족도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 '배우자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 등 2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가족관계 만족도와 관련해 6개 문항이 있었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의 변수를 측정변수로 선택하였다.

〈표 4〉 변수의 구성과 측정방식

변수	설문문항	측정
일-생활 갈등 I	직장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일-생활 갈등 I 1)	1~5
	직장일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일-생활 갈등 I 2)	1~5
일-생활 갈등 II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생활이나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일-생활 갈등 II 1)	1~5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에서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다(일-생활 갈등 II 2)	1~5
가족관계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가족관계 만족도1)	1~5
	배우자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가족관계 만족도2)	1~5
가사분담 (아내전담정도)	의류 손질 및 세탁에 대해 부부간 분담 정도(거의 남편이: 1~거의 아내가: 5)(가사분담1)	1~5
	청소 및 정리에 대해 부부간 분담 정도(거의 남편이: 1~거의 아내가: 5)(가사분담2)	1~5
코로나19 가족갈등	코로나19로 인해 자녀(형제, 자매)간 갈등이 심화되었다(코로나19 가족갈등1)	1~5
	코로나19로 인해 부모-자녀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코로나19 가족갈등2)	1~5

3. 분석방법

일-생활 갈등Ⅰ, 일-생활 갈등Ⅱ, 가족관계 만족도, 가사분담, 코로나19 가족갈등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수의 왜도와 첨도값을 활용하여 자료의 정규성을 파악하였다. 표준왜도지수의 절대값이 3.0보다 크면 왜도가 심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고, 표준첨도지수의 절대값이 10보다 크면 분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문수백, 2009).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있어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에 있어서, X^2, NFI,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X^2는 표본의 크기가 클 경우 기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이학식·임지훈, 2013). 일반적으로 NFI, TLI, CFI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0.9 이상이면 수용할만하다고 보며(배병렬, 2011), RMSEA는 0.08 이하일 때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차한솔·이호수·김주일, 2019).

다음으로 일-생활 갈등Ⅰ, 일-생활 갈등Ⅱ, 가족관계 만족도, 가사분담, 코로나19 가족갈등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족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AMOS25에서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하였고, Bias-corrected percentile method에 의한 Two Tailed Significance를 활용하여 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였다.

한편, 조절변수가 명목척도처럼 질적 속성을 가질 경우에는 다집단비교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이 사용된다(조철호, 2014).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구조적 관계가 성별 및 고용유형별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즉 성별 및 고용유형별 집단 변수가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분석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최은영·박종효, 2019). 1단계는 형태동일성 검증이며,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구조모형이 집단의 자료에 각각 적합한지 분석한다. 2단계는 측정동일성 검증이며,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집단 간에 같은지 분석한다. 3단계는 구조동일성 검증이며, 구조계수가 집단 간에 같은지 분석한다.

4. 데이터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시행하고 사회문화발전연구원이 조사한 '2020년 부산지역 가족실태조사' 자료이다. 조사시기는 2020년 5월로, 이 시기에 부산지역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응답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상태였다고 하겠다.

조사대상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시민(가구주 또는 배우자)이다. 조사대상자 선정은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2018년)를 기준으로 거주지역, 성별, 가족 유형에 따라 비례 할당되었다. 응답자는 2,000명이며, 이들 중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에 대해 결측치가 있는 응답자를 제외한 67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거주 지역	중부산권	234	34.72	학력	중졸이하	13	1.93
	서부산권	136	20.18		고졸	210	31.16
	동부산권	209	31.01		전문대졸	124	18.40
	남부산권	95	14.09		대졸	323	47.92
	전체	674	100		대학원졸	4	0.59
세대주 여부	세대주	413	61.28		전체	674	100
	세대주의 배우자	261	38.72	연령	20세-29세	43	6.38
	전체	674	100		30세-39세	106	15.73
성별	남성	409	60.68		40세-49세	205	30.42
	여성	265	39.32		50세-59세	198	29.38
	전체	674	100		60세-69세	100	14.84
가구원 수	2인	170	25.22		70세-79세	22	3.26
	3인	204	30.27		전체	674	100
	4인	259	38.43	결혼 상태	초혼	660	97.92
	5인	37	5.49		재혼	12	1.78
	6인	4	0.59		사실혼(동거)	2	0.30
	전체	674	100		전체	674	100
월평균 가구 소득	~299만원	107	15.88	취업 상태	취업	674	100
	300~599만원	409	60.68		전체	674	100
	600만원 이상	158	23.44	고용 유형	상시고용	435	64.54
	전체	674	100		임시고용	32	4.75
사회내 주관적경제적 수준	1(하)	8	1.19		일용직	16	2.37
	2	121	17.95		자영업	166	24.63
	3(중)	431	63.95		고용주	5	0.74
	4	109	16.17		무급가족 종사자	20	2.97
	5(상)	5	0.74		전체	674	100
	전체	674	100	주거 형태	자가	562	83.38
가족 건강성	1(전혀 건강하지 않음)	2	0.30				
	2	20	2.97		전세	107	15.88
	3(중)	136	20.18				
	4	417	61.87		보증금 있는 월세	5	0.74
	5(매우 건강함)	99	14.69				
	전체	674	100		전체	674	100

일-생활 갈등Ⅰ1이 평균 2.60, 일-생활 갈등Ⅰ2가 평균 2.58로 나타났다. 일-생활 갈등Ⅱ1이 1.98, 일-생활 갈등Ⅱ2가 1.90으로 나타났다. 직장일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가정생활로 직장일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보다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1이 가족관계 만족도2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전담하는 방향으로의 가사분담의 경우, 가사분담1(의류손질 및 세탁)이 가사분담2(청소 및 정리)에 비해 아내가 전담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가족갈등은 두 개 문항 모두 평균값이 2.08로 나타났다. 연구에 활용된 측정변수의 왜도는 그 절대값이 3을 넘지 않았고, 첨도는 그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아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항목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일-생활 갈등 I	일-생활 갈등 I 1	2.60	0.92	0.45	2.56
	일-생활 갈등 I 2	2.58	1.05	0.10	2.13
일-생활 갈등 II	일-생활 갈등 II 1	1.98	0.91	0.74	2.98
	일-생활 갈등 II 2	1.90	0.85	0.94	3.94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1	3.82	0.63	−1.17	6.23
	가족관계 만족도2	3.45	0.73	−0.59	4.20
가사분담 (아내전담정도)	가사분담1	4.22	0.76	−0.87	3.88
	가사분담2	3.71	0.92	−0.45	2.55
코로나19 가족갈등	코로나19 가족갈등1	2.08	0.82	0.48	3.04
	코로나19 가족갈등2	2.08	0.80	0.60	3.44

변수간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가족관계 만족도와 일-생활 갈등Ⅰ 간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족관계 만족도와 일-생활 갈등Ⅱ 간 상관관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부록 1〉 참조).

5.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구조모형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변수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구성개념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했다. 연구에서 활용되는 측정변수 10개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뢰성 검증방법은 알파계수법이며, 기준값으로 크론바하알파 계수를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한다(조철호, 2014). 본 연구에서 크론바하알파계수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서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부록 2〉 참조).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X^2이 62.717(df=25, p〈0.001), NFI는 0.957, TLI는 0.951, CFI는 0.973, RMSEA는

0.047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측정변수들과 잠재변수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요인적재치를 살펴보았다. 요인적재치가 0.6 이상일 때 측정변수가 잠재변수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0.5 이상인 경우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차한솔 외, 2019). 분석결과 대부분의 변수들의 표준적재치 값이 0.6을 넘고 있고, 가사분담2 변수는 0.5를 넘고 있다. 따라서 측정변수가 잠재변수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집중타당도를 검증하는데 있어, 평균분산추출(AVE)값의 추천 기준치는 0.5이며, 구성개념 신뢰도의 경우 추천 기준치는 0.7이다(조철호, 2006; 조철호, 2014).[5] 분석결과, 각 잠재변수별 측정변수의 AVE값이 0.5보다 크게 나타났고 구성개념 신뢰도의 경우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집중타당도가 있다고 하겠다.

〈표 7〉 확인적 요인분석(집중타당도)

구분			비표준화 계수	S.E.	C.R.	P	표준화 계수	AVE	구성 개념 신뢰도
코로나19 가족갈등2	〈---	코로나19 가족갈등	1				0.861	0.677	0.804
코로나19 가족갈등1	〈---	코로나19 가족갈등	0.75	0.102	7.37	***	0.638		
일-생활 갈등Ⅱ1	〈---	일-생활 갈등Ⅱ	1				0.715	0.631	0.773
일-생활 갈등Ⅱ2	〈---	일-생활 갈등Ⅱ	0.985	0.129	7.638	***	0.766		
일-생활 갈등Ⅰ1	〈---	일-생활 갈등Ⅰ	1				0.747	0.663	0.797
일-생활 갈등Ⅰ2	〈---	일-생활 갈등Ⅰ	1.342	0.148	9.072	***	0.857		
가족관계 만족도2	〈---	가족관계 만족도	1				0.664	0.653	0.790
가족관계 만족도1	〈---	가족관계 만족도	0.91	0.128	7.081	***	0.694		
가사분담1	〈---	가사분담	1				0.833	0.590	0.736
가사분담2	〈---	가사분담	0.876	0.208	4.219	***	0.583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를 추정하였다. 일-생활 갈등Ⅰ과 일-생활 갈등Ⅱ의 상관관계가 0.297로 나타났다. 일-생활 갈등Ⅱ와 가사분담(아내전담정도)의 상관관계가 -0.263으로 나타났다. 판별타당도 평가와 관련해서는, AVE값이 개념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상회하는지의 여부를 통해 검토한다(배병렬, 2011). 분석결과, AVE값이 상관계수의 제곱값(ρ^2)보다 더 크다. 따라서,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5) 평균분산추출값과 구성개념 신뢰도의 계산방법은 조철호(2014, p.183) 참조.

〈표 8〉 확인적 요인분석(판별타당도)

	일-생활 갈등 I	일-생활 갈등 II	가족관계 만족도	가사분담	AVE
일-생활 갈등 I (ρ^2)	1				0.663
일-생활 갈등 II (ρ^2)	0.297(0.088)	1			0.631
가족관계 만족도(ρ^2)	-0.279(0.078)	0.055(0.003)	1		0.653
가사분담 (아내전담 정도)(ρ^2)	0.008(0.000)	-0.263(0.069)	-0.142(0.020)	1	0.590
코로나19 가족갈등(ρ^2)	0.276(0.076)	0.188(0.035)	-0.380(0.144)	-0.039(0.002)	0.677

Ⅳ. 분석결과

1.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 검증에서 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었으므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보면, X^2은 63.439(df=27, p〈0.001), NFI는 0.955, GFI는 0.982, CFI는 0.973, RMSEA는 0.046로 나타나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 경로를 보면, 일-생활 갈등Ⅰ은 코로나19 가족갈등(β=0.126, $C.R.$=2.309, p〈0.05)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일로 인해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생활 갈등이 클수록 코로나19 가족갈등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1은 채택된다. 일-생활 갈등Ⅱ는 코로나19 가족갈등(β=0.166, $C.R.$=3.048, p〈0.0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로 인해 직장일에 어려움을 겪는 일-생활 갈등이 클수록 코로나19 가족갈등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2는 채택된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코로나19 가족갈등(β=-0.35, $C.R.$=-5.535 p〈0.00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커질수록 코로나19 가족갈등은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3은 채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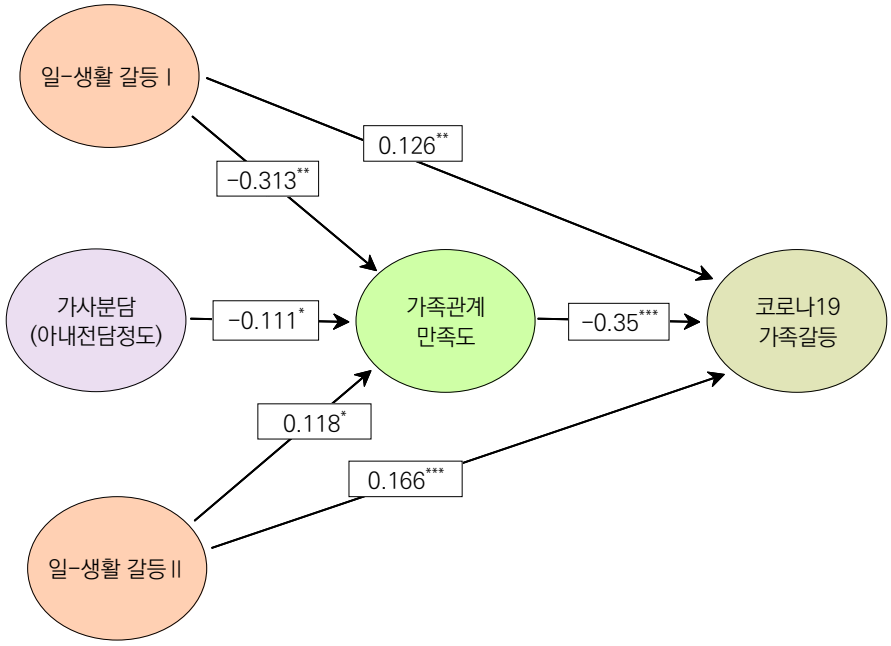
일-생활 갈등Ⅰ은 가족관계 만족도(β=-0.313, $C.R.$=-4.907, p〈0.001)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4는 채택된다. 일-생활 갈등Ⅱ는 가족관계 만족도(β=0.118, $C.R.$=1.8, p〈0.1)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5는 채택되지 않는다. 가사분담(아내전담정도)은 가족관계 만족도(β=-0.111, $C.R.$=-1.745, p〈0.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가족관계 만족도는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8은 채택된다.

〈표 9〉 구조방정식모형 경로계수 분석결과

			B (비표준화 계수)	β (표준화 계수)	C.R.	P
가족관계 만족도	〈---	일-생활 갈등 I	-0.221	-0.313	-4.907	***
가족관계 만족도	〈---	가사분담 (아내전담정도)	-0.092	-0.111	-1.745	0.081
가족관계 만족도	〈---	일-생활 갈등 II	0.09	0.118	1.8	0.072
코로나19 가족갈등	〈---	일-생활 갈등 I	0.13	0.126	2.309	0.021
코로나19 가족갈등	〈---	일-생활 갈등 II	0.185	0.166	3.048	0.002
코로나19 가족갈등	〈---	가족관계 만족도	-0.511	-0.35	-5.535	***
Model Fit			Chi-square = 63.439(Probability level: .000) NFI: 0.955, GFI: 0.982, CFI: 0.973, RMSEA: 0.046			

(p〈0.001: ***)

〈그림2〉 연구모형의 인과분석결과



표준화계수값임
(p〈0.01: *** p〈0.05: ** p〈0.1: *)

2. 매개효과 분석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분석한 간접효과는 〈표 10〉과 같다. 일-생활 갈등Ⅰ과 코로나19 가족갈등 간 관계에서, 일-생활 갈등Ⅱ와 코로나19 가족갈등 간 관계에서, 가족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관계 만족도는 일-생활 갈등Ⅰ과 코로나19 가족갈등, 그리고 일-생활 갈등Ⅱ와 코로나19 가족갈등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6과 가설7은 채택된다. 가사분담과 코로나19 가족갈등 간 관계에서, 가족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9는 기각된다.

일-생활 갈등Ⅰ과 코로나19 가족갈등 간 관계에서의 간접효과와 일-생활 갈등Ⅱ와 코로나19 가족갈등 간 관계에서의 간접효과는 부호가 반대로 나타났다. 일-생활 갈등Ⅰ은 가족관계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일-생활 갈등Ⅱ는 가족관계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간접효과가 반대로 나타났다.

〈표 10〉 간접효과 추정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일-생활 갈등Ⅰ→코로나19 가족갈등	0.126	0.110***	0.235**
일-생활 갈등Ⅱ→코로나19 가족갈등	0.166**	-0.041*	0.125*
가사분담→코로나19 가족갈등	0	0.039	0.039

(p〈0.01: *** p〈0.05: ** p〈0.1: *)

3. 성별 차이

모형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을 검증하였다.

형태동일성 검증결과 X^2은 100.780(df=52, p〈0.001)로 영가설이 기각되었지만, NFI는 0.932, GFI는 0.972, CFI는 0.965로 0.90보다 크며, RMSEA도 0.037로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따라서 성별 집단 간에 형태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서, 성별 집단의 측정변수 요인부하량을 모두 같게 두고 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하였다. 모형 비교 결과 비제약모형과 요인부하량 고정 모형의 X^2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ΔX^2=6.572, Δdf=5, p=0.254). 따라서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다. 측정변수에 의해 가정되는 잠재변수들의 구조가 두 집단 간에 같다고 볼 수 있다.

측정동일성이 충족되었으므로, 구조동일성 검증을 위하여 두 집단의 구조계수를 같게 두고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했다. 모형 비교 결과, 요인부하량 고정 모형과 구조계수 고정 모형의 X^2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ΔX^2=12.738, Δdf=6, p=0.047). 따라서 성별에 따라 변수 간 구조모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0은 채택되며, 성별 집단 변수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 일-생활 갈등Ⅰ과[6] 일-생활 갈등Ⅱ[7] 모두가 코로나19 가족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남성의 경우에, 일-생활 갈등Ⅱ만이 코로나19 가족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우, 아내가 전담하는 방향으로의 가사분담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남성의 경우, 아내가 전담하는 방향으로의 가사분담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에서 부부간에 가사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여성의 입장에서는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여성과 남성 모두의 경우에, 일-생활 갈등Ⅱ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성별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X^2	df	ΔX^2	ΔNFI	ΔIFI	ΔRFI
형태동일성	100.780	52				
측정동일성	107.352	57	6.572	0.004	0.005	-0.003
구조동일성	120.090	63	12.738	0.009	0.009	0.001

〈표 12〉 모형의 (성별) 집단별 경로계수

			남성				여성			
			B (비표준화 계수)	β (표준화 계수)	C.R.	P	B (비표준화 계수)	β (표준화 계수)	C.R.	P
rs	〈---	w1	-0.297	-0.445	-5.282	***	-0.149	-0.197	-2.04	0.041
rs	〈---	hw	-0.006	-0.007	-0.084	0.933	-0.207	-0.223	-2.096	0.036
rs	〈---	w2	0.11	0.139	1.62	0.105	0.119	0.157	1.537	0.124
cov	〈---	w1	0.017	0.017	0.223	0.824	0.203	0.213	2.418	0.016
cov	〈---	w2	0.219	0.186	2.565	0.01	0.162	0.17	1.825	0.068
cov	〈---	rs	-0.704	-0.477	-4.965	***	-0.305	-0.242	-2.632	0.008

(요인부하량 동일성모형)(p〈0.001: ***)
(rs=가족관계 만족도, w1=일-생활 갈등Ⅰ, w2=일-생활 갈등Ⅱ, hw=가사분담(아내전담정도), cov=코로나19 가족갈등)

4. 고용유형별 차이

모형이 고용유형(상시고용, 임시/일용/무급, 자영고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을 검증하였다.

형태동일성 검증결과 X^2은 120.010(df=78, p〈0.01)로 영가설이 기각되었지만, NFI는 0.923, GFI는 0.967, CFI는 0.970으로 0.90보다 크며, RMSEA도 0.028로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6) 5% 유의수준에서
7) 10% 유의수준에서

따라서 고용유형별 집단 간에 형태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서, 고용유형별 집단의 측정변수 요인부하량을 모두 같게 두고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모형 비교 결과 비제약모형과 요인부하량 고정 모형의 X^2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ΔX^2=11.207, Δdf=10, p=0.342). 따라서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다. 측정변수에 의해 가정되는 잠재변수들의 구조가 두 집단 간에 같다고 볼 수 있다.

측정동일성이 충족되었으므로, 구조동일성 검증을 위해서 세 집단의 구조계수를 같게 두고 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하였다. 모형 비교 결과, 요인부하량 고정 모형과 구조계수 고정 모형의 X^2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ΔX^2=24.207, Δdf=12, p=0.019). 따라서 고용유형에 따라 변수 간 구조모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1은 채택되며, 고용유형별 집단 변수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시고용의 경우, 일-생활 갈등Ⅰ과 일-생활 갈등Ⅱ 모두가 코로나19 가족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그리고 상시고용의 경우, 아내가 전담하는 방향으로의 가사분담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무급의 경우 어떤 경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고용의 경우에는 일-생활 갈등Ⅱ가 코로나19 가족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관계 만족도가 코로나19 가족갈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고용유형별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X^2	df	ΔX^2	ΔNFI	ΔIFI	ΔRFI
형태동일성	120.010	78				
측정동일성	131.217	88	11.207	0.007	0.008	-0.004
구조동일성	155.424	100	24.207	0.016	0.016	0.005

〈표 14〉 모형의 (고용유형별) 집단별 경로계수

			상시고용				임시/일용/무급				자영/고용			
			B (비표준화 계수)	β (표준화 계수)	C.R.	P	B (비표준화 계수)	β (표준화 계수)	C.R.	P	B (비표준화 계수)	β (표준화 계수)	C.R.	P
rs	〈--	w1	-0.33	-0.46	-5.64	***	-0.05	-0.07	-0.29	0.77	-0.08	-0.11	-1.08	0.28
rs	〈--	hw	-0.13	-0.15	-1.81	0.07	-0.24	-0.33	-1.57	0.12	0.02	0.02	0.23	0.82
rs	〈--	w2	0.12	0.15	1.81	0.07	-0.16	-0.22	-0.75	0.45	0.14	0.16	1.44	0.15
cov	〈--	w1	0.15	0.14	1.73	0.084	0.14	0.19	0.73	0.47	-0.01	-0.02	-0.16	0.87
cov	〈--	w2	0.16	0.13	1.95	0.052	0.25	0.33	1.18	0.24	0.37	0.35	3.39	***
cov	〈--	rs	-0.61	-0.40	-4.25	***	-0.10	-0.10	-0.50	0.62	-0.42	-0.36	-3.51	***

(요인부하량 동일성모형)(p〈0.001: ***)

(rs=가족관계 만족도, w1=일-생활 갈등Ⅰ, w2=일-생활 갈등Ⅱ, hw=가사분담(아내전담정도), cov=코로나19 가족갈등)\

8) 10% 유의수준에서

Ⅴ. 결론: 분석결과 해석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일-생활 갈등과 가사분담(아내전담정도)이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가족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다집단분석을 통해 성별 집단과 고용유형별 집단 변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일-생활 갈등과 관련해서 구조방정식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를 보면, '일-생활 갈등Ⅱ(FIW)→코로나19 가족갈등(0.166)'이 '일-생활 갈등Ⅰ(WIF)→ 코로나19 가족갈등(0.126)'에 비해 경로계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두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활용하는 부산지역 가족실태조사가 2020년 5월에 이루어졌고, 당시는 코로나19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생활 갈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 영역이 협소해지고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일-생활 갈등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는 가족갈등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는 가족정책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생활 갈등Ⅰ이 가족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갖는 매개효과를 고려해, 코로나19 가족갈등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족관계 만족도를 촉진하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일-생활 갈등Ⅱ의 코로나19 가족갈등에 대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5와 달리 일-생활 갈등Ⅱ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된다. 일-생활 갈등Ⅱ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생활 강화 및 젠더 역할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고, 이후의 연구는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집단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집단 변수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경로계수를 검토하면, 남성의 경우에는 '일-생활 갈등Ⅰ→코로나19 가족갈등(0.017)'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생활 갈등Ⅱ→코로나19 가족갈등(0.186)'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일-생활 갈등Ⅰ→코로나19 가족갈등(0.213)'의 경로계수가 '일-생활 갈등Ⅱ→코로나19 가족갈등(0.17)'의 경로계수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두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활 갈등Ⅰ→코로나19 가족갈등' 경로가 의미하는 것은 '직장일로 인한 가정생활의 어려움'이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남성의 경우에는 이런 인과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일-생활 갈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광범위하고 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생활 균형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젠더 관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성별 다집단분석을 시행하여 성별 경로계수를 별도로 검토하는 경우에는, 남녀 모두에 있어 일-생

활 갈등Ⅱ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형별 집단 변수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형별로는 상시고용의 경우에, 일-생활 갈등이 코로나19 가족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시고용/일용직/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일-생활 갈등이 코로나19 가족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형에 따라 직면하는 문제가 이질적임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서, 아내가 전담하는 방향으로의 가사분담이 가족관계 만족도 저하를 가져온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분석되었다.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서, 가사분담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집단분석을 통해서, 가사분담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아내가 전담하는 방향으로의 가사분담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여성의 경우, 아내가 전담하는 방향으로의 가사분담이 가족관계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 공평한 가사분담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앞으로의 가족정책은 남편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의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한국 전체에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간 차이에 대해 이후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의 생활은 가정생활에 국한되며, 가정생활 이외의 취미나 교육 등의 생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더욱 확장된 생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 내 역할 및 관계 변화를 파악하고,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야기하는 일과 가족생활 및 사회생활의 변화를 찾아낼 수 있는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결측치가 최소화되도록 충실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유진. (2015). 부부단독가구노인의 가사분담, 평등감, 의사소통이 부부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6(2): 361-374.

강이수. (2011). 취업 여성의 남편과 일-가족 문제. 「젠더와 문화」, 4(1): 43-87.

권승. (2003). 기혼여성의 고용형태에 따른 가정내 성평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2: 201-221.

길광현·정석훈·오성규·김건석. (2019). 워라밸 교육 프로그램이 상급종합병원 의료종사자의 여가만족, 행복감, 스트레스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21(4): 85-116.

김난주. (2020). 코로나19의 여성 노동에 대한 영향과 정책과제. 「노동N이슈」, 2020-10: 1-19.

김명환. (2021). 한국 대학의 코로나19 대응의 실상과 과제. 「대학: 담론과 쟁점」, 10: 9-20.

김미연·서영욱. (2021). 워라밸과 스마트워크환경이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헌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505-517.

김새봄·최송식. (2018). 중년 기혼여성의 성역할 인식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인문사회21」, 9(4): 77-92.

김세진·문수경. (201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참여기간, 가족관계만족도, 참여만족도 간의 관계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1): 115-130.

김연진·김수영(2015). 남성의 육아휴직 경험에 대한 연구: 이분법적 젠더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6(4), 285-319.

김영란. (2020). 코로나19 시기 가족생활과 가족 정책 의제. 「제3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김유경·이진숙·이재림·김가희. (2014).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이선. (2019).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실태와 가족갈등 양상. 「KWDI 이슈페이퍼」, 1-8.

김인경. (2020).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재정학연구」, 13(1): 1-28.

김자영·한창근. (2017). 장애인 가구원의 취업여부가 가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산수준과 우울감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복지연구」, 48(4): 5-31.

김지현·최영준. (2021). 코로나19 시기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남성 가사분담의 역할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70: 101-132.

김현미. (2020). 코로나19 위기와 젠더. 「여성우리」, 64: 4-5.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학지사.

문필동·이정화. (2016). 장애노인의 경제활동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6(3): 149-175.

민경선. (2018). 워라밸 세대의 여가와 삶의 만족도. 「한국웰니스학회지」, 13(3): 377-388.

박경은. (2020).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변화 대응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제3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박종서·이지혜. (2014). 가족관계 만족도의 특징과 사회적 함의. 가족안정과 사회적 지원, 「보건복지포럼」, 211: 32-44.

박지현. (2017). 중년남성의 통합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 및 가족관계 만족도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2(4): 189-202.

배병렬. (2011). 「AMOS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도서출판 청람.

송운용·도유희. (2019). 자산 수준이 노인건강에 미치는 영향-가족관계 만족도의 매개 효과.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12): 1133-1143.

신명숙·옥경희. (2014).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의 가사분담과 부부공유활동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9(1): 5-25.

양석원·정찬구. (2021).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 워라밸, 직무자율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프로티언경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18(2): 27-56.

양옥경. (2001). 가족관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8: 119-147.

엄혜경·성상현. (2017). 일-가정 갈등 그리고 가정-일 갈등이 기혼여성관리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 양립 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93(2): 35-70.
오미옥·이진향. (2019). 저소득 가구의 가족갈등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9(11): 993-1003.
오영은·이정화. (2020). 부부간 양육분담과 가사분담 지각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와 홑벌이 부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1(4): 625-644.
우은주·전예진·김영국. (2021). 워라밸과 삶의 질 영향 관계 분석: 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태비즈니스연구」, 12(2): 131-143.
유계숙. (2010).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 전이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9(1): 41-70.
유계숙·강수향·오아림·이주현. (2011).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5(1): 117-136.
유정헌·성혜영. (2009). 노년기 우울에 대한 가족관계 만족도의 중재효과. 「한국노년학」, 29(2): 717-728.
윤수인·이홍직. (2020).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인구사회학적 요인, 좋은 일자리 요인, 일-생활 균형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2(2): 373-400.
이명신. (1998). 맞벌이 부인의 스트레스 결정요인: 전문직 부인과 생산직 부인의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 115-148.
이성은. (2021). 노인운전자의 안전운전이 가족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와 융합」, 43(9): 941-954.
이여봉. (2010). 부부역할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연령범주별 분석. 「한국인구학」, 33(1): 103-131.
이재완·강혜진. (2018). 워라밸과 삶의 만족: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3): 267-291.
이정숙. (2002). 도시 기혼 직업인의 가사분담관리행동과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1): 51-65
이제니·문지현·진혜수·정지연. (2021). 워라밸 인식과 관광체험, 관광태도, 관광행동 의도 간의 영향관계 연구: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조절효과. 「관광경영연구」, 25(2): 705-729.
이진우·금현섭. (2020). 맞벌이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사부담과 성 역할 인식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2(1): 34-69.
이학식·임지훈. (2013). 「구조방정식모형분석과 AMOS 20.0」. 도서출판 집현재.
임연옥·윤현숙·황지성. (2016). 노인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가족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 부부관계와 자녀관계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0: 1-28.
임인숙·한신원·박지연. (2012). 유급노동과 무급 가사노동의 질이 성인 남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46(2): 176-202.
장은경·최희정. (2019). 중년에서 이혼과 신체건강의 관련성: 성별에 따른 가족/사회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1): 23-43.
정희정. (2019). 일·생활 균형 및 성평등 현안과 유연근로제의 한계. 「국제사회보장리뷰」, 8: 49-60.
조철호. (2006). 전자상거래에서 초기신뢰와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구매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중소 인터넷쇼핑몰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28(1): 173-202.

조철호. (2014).「SPSS/AMOS 활용 구조방정식모형 논문 통계분석」. 도서출판 청람.

조혜숙. (2013). 중·노년기 부부관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조절역할.「생애학회지」, 3(2): 1-19.

주국희. (2020). 코로나19에서 겪는 가족갈등, 가족 내 성평등, 나아가 소통.「여성우리」, 64: 10-13.

진미정. (2020). 토론문.「제3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진미정·성미애·손서희·유재언·이재림·장영은.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3): 447-461.

차한솔·이호수·김주일. (2019).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청소년시설환경」, 17(4): 41-55.

최아라. (2020). 코로나19, 아동돌봄 쟁점과 과제.「인문사회21」, 11(4): 1379-1389.

최은영. (2016). 고용상 지위에 따른 정신건강과 일-생활 시간갈등의 차이.「생활과학연구논총」, 20(2): 33-42.

최은영·박종효. (2019). 또래지위와 학업성취도 관계에서 학교참여의 매개효과와 학교급 차이.「교육심리연구」, 33(3): 341-369.

최진욱·노종호. (2020). 가족친화정책이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 및 혼인여부에 의한 집단 간 비교분석.「한국인사행정학회보」, 19(4): 61-95.

현솔지·백학영. (2020). 기혼 직장 남녀의 일-가정 갈등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사회과학연구」, 59(2): 531-569.

호윤정·오영아·이명선. (2015). 보육형태와 가사노동분담이 기혼여성의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대한보건연구」, 41(2): 77-87.

Carlson, Daniel L., Petts, Richard J., & Pepin, Joanna R. (2021). Changes in US Parents' Domestic Labor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COVID-19 Pandemic. *Sociological Inquiry*, 20(10): 1-28.

Craig, Lyn & Churchill, Brendan. (2021). Working and Caring at Home: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Covid-19 on Paid and Unpaid Labor in Australia. *Feminist Economics*, 27: 1-2, 310-326. DOI: 10.1080/13545701.2020.1831039

Crompton, R. & Lyonette, C. (2006). Work-life balance in Europe. *Acta Sociologica*, 49(4): 379-393.

Glass, Jennifer & Fujimoto, Tetsushi. (1994). Housework, Paid Work, and Depression among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2): 179-191.

Greenhaus, Jeffrey H. & Powell, Gary N. (2006). When Work and Family Are Allies: A Theory of Work-Family Enrichmen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1): 72-92.

Gutek, Barbara A., Searle, S., & Klepa, L. (1991). Rational Versus Gender Role Explanations for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4): 560-568.

Hochschild, Arlie. (1989). *The Second Shift*. Penguin Books.

Kelliher, C., Richardson, J., & Boiarintseva, G. (2019). All of work? All of life? Reconceptualising work-life balance for the 21st century. *HRM Journal,* 29(2): 97-112.

Landivar, Liana C., Ruppanner, Leah, Scarborough, William J., & Collins, Caitlyn. (2020). Early

Signs Indicate That COVID-19 Is Exacerbating Gender Inequality in the Labor Force. *Socius*, 6: 1-3.

Lonska, J., Mietule, I., Litavniece, L., Arbidane, I., Vanadzins, I., Matisane, L., & Paegle, L. (2021). Work–Life Balance of the Employed Population During the Emergency Situation of COVID-19 in Latvia. *Frontiers in Psychology*, 12: 1-15.

Qian, Yue, & Fuller, Sylvia. (2020). COVID-19 and the Gender Employment Gap among Parents of Young Children. *Canadian Public Policy*, 46(S2): S89–S101.

Ryu, G. (2015). The Cross-Domain Effects of Work and Family Role Stressors on Public Employees in South Korea.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35(3): 238-260. doi:10.1177/0734371x14540179.

Schieman, S., Badawy, P. J., Milkie, M. A., & Bierman, A. (2021). Work-Life Conflic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ocius*, 7: 1-19.

Shafer, Kevin, Scheibling, Casey, & Milkie, Melissa A. (2020). The Division of Domestic Labour before &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Canada.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57(4): 523–549.

Warren, Tracey. (2021). Work-life balance and gig work: 'Where are we now' and 'where to next' with the work-life balance agenda?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63(4): 522-545.

사이트

OECD Better Life Index.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work-life-balance/

최경희(崔敬姬):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제목: 지역산업진흥사업 거버넌스 네트워크 연구-대구 밀라노프로젝트와 광주 광산업프로젝트 사례, 2009), 현재 영남대학교 경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 사무국장/경북대학교 대학원 도시재생학과 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논문으로 An effect analysis of reg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policies: focused on Gyeongbuk province in Korea(2015), 목표설정, 성과평가, 자율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안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2021) 등이 있다(khchoi67@yu.ac.kr).

〈논문접수일: 2022. 3. 23 / 심사개시일: 2022. 3. 29 / 심사완료일: 2022. 4. 28〉

〈부록〉

〈부록 1〉 변수간 상관분석 결과

	1 가족관계 만족도1	2 가족관계 만족도2	3 가사분담1	4 가사분담2	5 일-생활 갈등Ⅰ1	6 일-생활 갈등Ⅰ2	7 일-생활 갈등Ⅱ1	8 일-생활 갈등Ⅱ2	9 코로나19 가족갈등	10 코로나19 가족갈등
1	1									
2	0.4687	1								
3	-0.0536	0.0253	1							
4	-0.1267	-0.0104	0.4957	1						
5	-0.1358	-0.211	-0.0475	0.0197	1					
6	-0.1308	-0.2024	-0.0365	0.0586	0.6371	1				
7	-0.0049	-0.0113	-0.1334	-0.0987	0.1764	0.215	1			
8	0.0228	-0.0087	-0.1852	-0.0758	0.2073	0.2299	0.5561	1		
9	-0.1425	-0.1325	-0.0984	0.0287	0.089	0.1745	0.1201	0.1624	1	
10	-0.2418	-0.1872	-0.0354	0.0829	0.2031	0.2084	0.1011	0.1392	0.5355	1

〈부록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도

	성분					Cronbach'α
	요인1 일-생활 갈등Ⅰ	요인2 코로나19 가족갈등	요인3 일-생활 갈등Ⅱ	요인4 가사분담 (아내전담정도)	요인5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1		-0.137		-0.142	0.845	0.634
가족관계 만족도2	-0.178				0.838	
가사분담1		-0.100	-0.128	0.845		0.654
가사분담2				0.864		
일-생활 갈등Ⅰ1	0.901					0.774
일-생활 갈등Ⅰ2	0.878	0.117	0.129			
일-생활 갈등Ⅱ1			0.875			0.714
일-생활 갈등Ⅱ2			0.860			
코로나19 가족갈등1		0.885				0..697
코로나19 가족갈등2	0.134	0.845			-0.176	

Abstract

Effect of work-life conflict on family conflict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Choi, Kyunghee

This study aims to analyz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work-life conflicts, family conflicts,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housework sharing and to discover implications for the family policy in the COVID-19 pandemic. In this study,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review of theory and previous studies, and data from '2020 Family Survey in Busan' was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With the literature review,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pplied while using '2020 Family Survey in Busan' as the analysis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work-life conflict had a direct effect on the family conflict in the context of COVID-19. Second, it was revealed that work-life conflict indirectly affects family conflict in the context of COVID-19 through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as a mediator. However, the indirect effect of housework sharing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Finally, the difference in structural models was discovered depending on the gender and employment type.

Key Words: COVID-19, work-life conflict, housework sharing, family conflict,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